Merck, 디스플레이 세미나 서울·구미 개최

Merck Advanced Technologies(MAT)가 10월 16-17일 서울과 구미에서 <Merck LC Insight 2007>을 개최하고,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의 연구개발 활동영역에 대한 최신 기술 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다.

Merck 글로벌세미나는 독일, 일본, 타이완, 한국 등에서 2년마다 진행되는 국제적 LC 전문세미나로 2007년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OLED, RM(Reactive Mesogens), OE(Organic Electronics), SL(Structuring Solutions) 등 디스플레이 신기술에 대한 다양한 학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Merck 본사의 개발전문가 7명이 세미나에 직접 참여해, 별도로 구성된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기존 LC분야에 대한 의문 사항들에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차세대 LC 분야에 대한 관심도 증대시킬 전망이다.

Merck는 액정에 대한 연구 개발을 주도해 왔는데 한국의 MAT는 신기술사업 분야에서 대형 LCD TV, 소형 핸드폰, LCD 모니터 및 노트북 등에 이르는 다양한 LCD 제품군에 최적의 액정 제품을 소개하며, LC 분야에서는 반응속도를 배가시킬 수 있는 4가지 차세대 LC재료를 선보였다.

또 액정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액정 연구개발 및 생산의 세계적인 선두 주자로서 VA, IPS, TN, STN 등에 대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7/10/16>